

강화된 광주시 환경조례 어떤 내용 담았나

택지개발 15만㎡ 이상 땀 환경평가 받아야

광주시가 최근 관련법 규정보다 50%까지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확대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공포해,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하게 될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택지개발과 도로건설, 산단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 시는 조례를 제정해 이어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조례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도입 배경=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국가가 실시해왔다. 하지만 중·소규모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서울·부산·인천·대전 등 다른 자치단체도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를 이미 도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과 범위=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을

국가기준 보다 50% 평가 대상 확대

중·소규모 사업도 포함... 난개발 방지

비롯한 주거환경개선사업·산업단지 조성·체육시설·관광단지개발 등 12개 분야 39개 사업이다.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택지개발의 경우 국가기준은 30만㎡ 이상이지만, 광주시의 기준은 15만㎡ 이상, 30만㎡미만인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또 ▲도로건설은 2km 이상 ▲산업단지 개발 7만5천㎡ 이상 ▲하천 이용 및 개발 5km 이상 ▲관광단지 개발 15만㎡ 이상 ▲묘지 또는 납골시설 설치 12만5천㎡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항목은 동·식물, 지질, 수질, 토양, 악취, 대기질, 일조장애, 전파장애, 폐기물 등 22개 분야다.

◇평가절차와 위원회 운영=해당 사업자가 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사업자가 최종 평가서를 승인기관에 시에 제출하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심의내용을 통보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만일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는 저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도록 돼 있다.

평가위원회의 대외교수, 환경단체 회원 등 분야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다.

◇경제실리기에 역행?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은 개발을 막자는 것이 아니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자는 것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의 주된 대상은 광주시나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시공사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도로건설·산단조성 등 이어서 개발기업체에 대한 규제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하자는 취지에서 지역환경영향평가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한라산 정상 5일에 한 번 태풍 분다

초속 17m 이상 강동 연70일 이상 몰아쳐

'바람 많은 섬' 제주도 중심부에 우뚝 선 한라산 정상부에는 연평균 5일에 한 번 폭로 초속 17m 이상의 태풍급 강풍이 휘몰아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눈 덮힌 한라산 설경. 한라산 정상부의 연평균 풍속은 초속 9.5m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는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까지 2년 동안 한라산 정상부인 해발 1천920m 동능 정상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의 초음파식 풍향 풍속계를 이용해 매일 30분 간격으로 풍속을 측정, 그 결과를 최근 발간한 '제6호 한라산 조사보고서'에 수록했다.

이에 따르면 한라산 정상부의 연평균 풍속은 초속 9.5m로 나타났다. 계절별 풍속(초속)은 겨울 17.1m, 봄 8.8m, 가을 6.6m, 여름 5.6m로 관측돼 겨울철의 평균 풍

속이 여름철에 비해 3.1배나 강했다.

특히 기상청이 태풍 급으로 분류하는 초속 17m 이상의 강풍 출현 비율은 최소 19.2%로 나타나 연 365일 중 70일 가량이 약한 태풍 이상의 영향권에 놓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라산연구소는 "한라산 정상부에서 관측된 9.5%의 평균 풍속은 제주도 지역에서 관측된 평균 풍속 3.3~3.8%보다 2.5~2.9배 높은 값"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남해 바다쓰레기

12.5%가 '외국산'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 떠다니는 바다 쓰레기 중 12.5%가 외국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안 흑산 하태도·여수 거문도를 비롯해 백령도·삼시도·하조도·차귀도·갈도·금오도·육지도·매물도 등 서해와 남해의 섬 12곳 주변 해역 각 100m에서 수거한 쓰레기 중 외국산이 12.5%를 차지했다. 전체 쓰레기 중 플라스틱 음료수 병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2.4%가 외국산이었다.

외국산 쓰레기 중에는 중국·대만·홍콩산이 91.4%로 가장 많고 ▲일본산 2.4% ▲말레이시아산 0.4% ▲베트남산 0.3% ▲러시아와 인도네시아산 0.2% ▲미국·영국·네덜란드·필리핀산 0.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산 쓰레기를 종류별로 보면 42.2%가 플라스틱 음료수 병이었고 부표가 28.2%, 각종 봉투가 5.0%, 병뚜껑이나 약병이 3.8%였다.

/김여울기자 wool@



말라 죽어가는 금남공원 소나무

가능성이 없으면 교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지난해 조성한 금남공원의 일부 소나무가 잎이 빨갛게 변하는 등 말라죽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강원도에서 가져와 심다보니 토양이 맞지 않아 적응을 못하는 것 같다"며 "치료해 보겠지만 생존할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바다 골재 채취 어려워진다

해수부 '골재 채취 해역이용협의 지침' 곧 시행

앞으로 우리나라 해안선 근처에서 바다 골재를 채취하기가 한결 어려워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우리나라 해안선에서 10km 거리이거나 수심 20m

이하, 바다 아래 바닥(하부 기저면)으로부터 2m이하의 바다 골재를 채취하려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점 검토하도록 규정한 '바다 골재 채취 해역이용협의 지침'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바다 골재를 채취할 경우 ▲바다 표층·중층·저층 3개 이상 수심에서 얻은 수질자료 ▲바다 밑 생태계의 피해와 회복시기

예측자료 ▲해당지역의 어류와 수산자원의 적정량 조사자료 ▲인근 도시의 계절별 해변분포나 높낮이 변화자료 등 까다로운 자료를 제출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받아야 한다. 해양부 관계자는 "각 계절별 시료나 자료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중점검토 대상이 되는 지역에서 바다 골재를 채취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은 중점검토를 위한 자료를 만드는 데 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리산 뱀사골 대피소 등 98곳

국립공원 환경저해 시설 정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해 상반기 중 이용률이 저조한 지리산의 뱀사골 대피소를 철거하는 등 전국 18개 국립공원내 환경저해 시설을 일제히 정비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뱀사골 대피소를 비롯해 설악산 대청봉 군 버키시설과 태안해안 초소, 오대산 청학대피소 등 환경저해 시설 98곳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공단은 철조망 등 군사 시설과 임시 파출소 등 공공기관 시설은 물론 주택과 상가 등 사유 시설도 정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도시 생태경관 조성 워크숍

지속 가능한 도시경관과 생태문화경관 만들기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는 "문화중심도시 광주에 걸맞은 생태문화경관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워크숍을 16일 오후 2시 옛 전남도청 민원실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제는 ▲무등산 시가문화권·하천생태 네트워크·물순환체계 및 수변공간 ▲가로녹지, 환상녹지축 ▲시생태문화공간 조성 전략 등이다. 김병완 광주대학교수, 전승수 전남대학교수, 김종일 광주·전남발전연구원원, 김경수 향토문화진흥원장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문의 514-2470.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생활안내		신고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월드컵안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위원회 상설법률상담소 671-4050 광주 YWCA 527-0011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888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병무민원상담 광주연남병무청 1588-9090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무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전남경찰청 22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테러 국번없이 02118 가정폭력 여성긴급국번없이 1366 여자형사기동대 363-0155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이동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89	상담 당직번호새(15월) 양평회 222-0011 법무사회 법률상담(15월) 이남주 239-1809

바다에서 만난 SASA & BARN

다양한 인테리어 제품과 가구들을 소개하고 있는 광고입니다.

광주전남 이용기능장 1호

가발

기술 12년 경력인 최고실력! 이수채원장 직점기술관리

심는가발 평생!!

대신님네 프럼모가발맞춤

광주광역시 서구 남부동 1-1번지 1층

문의: 010-9900-3330